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Top risks forecast: Bottom lines for business in 2024 and beyond

July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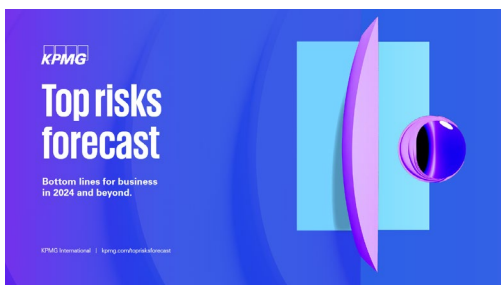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home.kpmg/kr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 글로벌 거버넌스의 취약성, 갈등의 증가, 다자주의 및 자유 무역의 후퇴로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및 투자가 위축되고 되면서 기업들의 리스크가 가중되는 상황
- ✓ 거시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는 ① 글로벌 무역의 복잡성, ② 글로벌 리더십이 사라진 G-제로 세계에서의 분쟁 증가, ③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규제의 격차 확대
- ✓ 최근 주요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세, 제재, 수출 통제 및 수입 요건 기준 강화는 한때 예측 가능한 무역 체제를 누렸던 기업들이 이제 무역 규제에 직면해 기업 운영과 회복탄력성을 재평가해야 함을 의미
- ✓ 지역간 블록 경쟁, 글로벌 분쟁 증가, 기후 리스크 및 기술 경쟁은 2024년 이후 비즈니스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며, 기업들은 운영·공급망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고 리스크 간 상호 연결성 고려
- ✓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갈등 증가로 글로벌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실행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별 무역 정책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op risks forecast: Bottom lines for business in 2024 and beyond”의 한글 요약본입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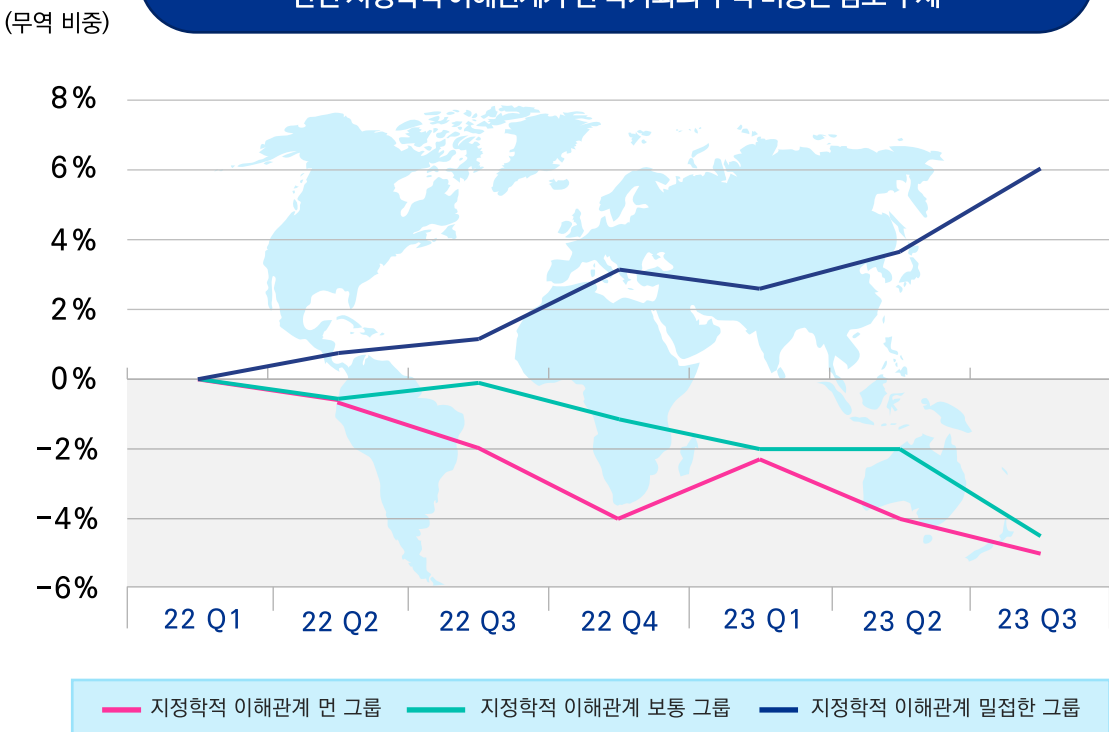
무역 정책 규제 (1/2)

다수의 정부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이념적·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무역관계 재조정

- UN에 의하면, 다수 국가가 '지정학적 이해관계(Geopolitically distant)'에 따라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국가와의 무역을 선호하는 등 글로벌 무역 패턴 변화 중
- 각국 정부가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역 장벽을 높이거나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분류 가능
 - 1) 전략 경쟁: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정책 등(반도체 기술 및 중요 광물 수출 통제)
 - 2) 갈등 기반 조치(Conflict-driven actions):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 3)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무역 패턴의 지정학적 변화 추이

22년 1분기 기준으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와의 무역 비중은 증가, 반면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먼 국가와의 무역 비중은 감소 추세



Source: UNCTAD calculations based on national statistics

참고: 양자 무역은 UN 데이터를 지표로 사용하는 지정학적 근접성 지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됨. 이 그래프는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각 그룹의 무역 비중의 변화 표시. 데이터는 가중치 평균이며, 유럽연합 내 무역과 서비스 부문은 제외됨

01

무역 정책 규제 (2/2)

최근 몇 년 동안 무역 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전략 경쟁



- 미국의 232/301조 수입관세
- 수출 및 최종 용도 통제

- 신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무역 규제와 산업 보조금은 글로벌 공급망을 조종하는 수단
- IMF에 따르면, 관세율 인상·수출 통제 및 수입 금지 등의 무역 제한 조치는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3,007건으로 대폭 증가

갈등 기반 조치



- 러시아 정부, 기업, 개인 제재
- 미국-유럽의 에너지 금수 조치

- 주요국간 갈등은 안보 기반 무역 조치의 확산 초래
-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및 해상 봉쇄 조치로 인해 에너지, 상품, 에너지 및 기술분야의 필수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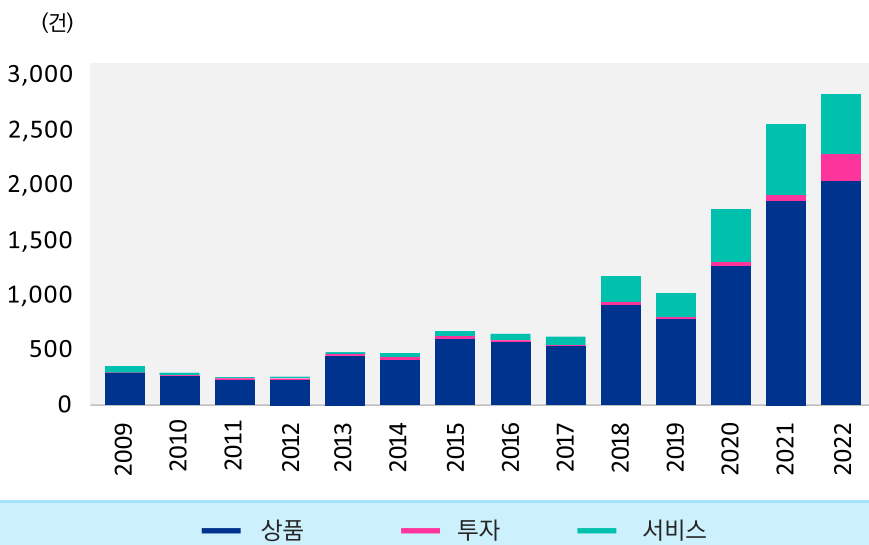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



- 탄소국경조정제도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 서방 국가들은 특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파트너와의 무역 제한하는 지속가능성 법안 증가 추세
- 기후 이니셔티브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인권 침해 대상 강제노동지침 규정은 공급망 관리 강화 조치

글로벌 무역 제한 조치 건수 증가 현황



Source: Global Trade Alert and IMF staff calc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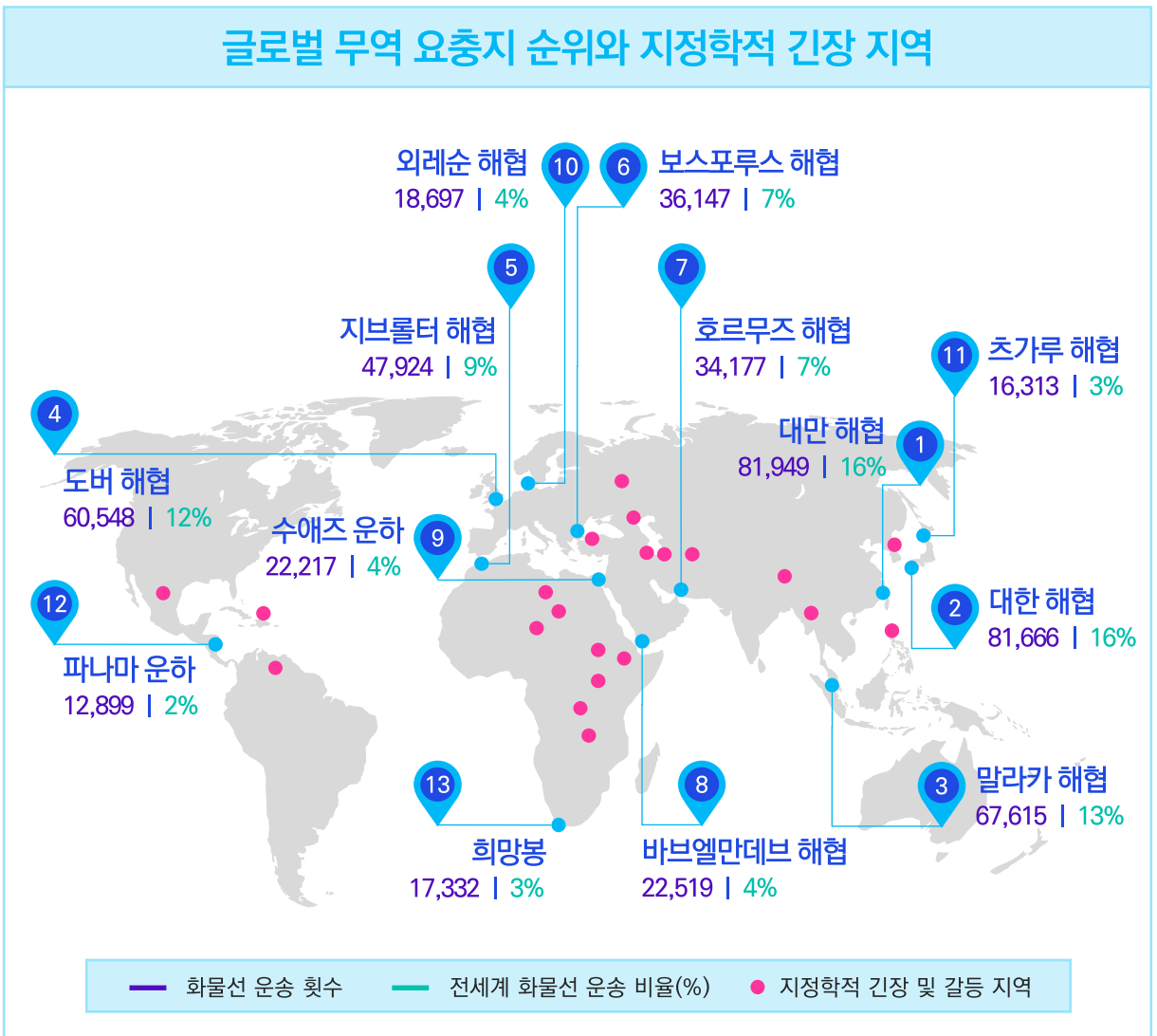
02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

2022년 기준 91개국이 지정학적 갈등에 연관, 2008년 58개국 대비 대폭 증가

- 글로벌 싱크탱크인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에 따르면, 갈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매력평가(PPP)기준 17.5조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12.9%로 인구 1인당 2,200달러의 경제적 손실 야기
- 지정학적 경쟁에서 수자원, 항구, 에너지와 같은 자원 통제가 중요한 역할
-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대만 해협, 말라카 해협 등 글로벌 해상 요충지에서의 갈등은 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와 배송 지연을 초래해 공급망 안정성 저해하고 기업들은 대체 공급망 구축 등의 리스크 대응 전략 필요

글로벌 무역 요충지 순위와 지정학적 긴장 지역



Source: IMF | PortWatch (September 2023)

03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산업별 영향 (1/2)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면적이며, 리스크 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이 산업마다 상이

- 정부&국방 분야는 대부분의 리스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리스크 중 <통제되지 않는 AI>, <중국의 성장 둔화>는 전 산업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소비재 & 유통	에너지 & 천연자원	금융 서비스	정부 & 국방	인프라	제조	기술·미디어·통신
KPMG sector FPI*	93.87	84.39	89.97	N/A	89.41	94.26	92.88
미국 대선	Yellow	Yellow	Green	Red	Yellow	Red	Red
중동 위기	Red	Red	Yellow	Red	Green	Green	Yellow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상태	Green	Yellow	Yellow	Yellow	Green	Yellow	Green
통제되지 않는 AI	Red	Yellow	Red	Red	Red	Yellow	Red
불량국가의 위협	Green	Red	Yellow	Red	Green	Green	Yellow
중국의 성장 둔화**	Red	Yellow	Red	Yellow	Red	Red	Yellow
핵심 광물 분쟁	Green	Red	Green	Red	Red	Red	Green
지속적인 세계 경제 침체	Red	Yellow	Red	Yellow	Red	Yellow	Yellow
엘니뇨와 극단적인 기상현상	Yellow	Green	Yellow	Yellow	Yellow	Green	Green
기업의 문화 충돌	Red	Green	Green	Yellow	Green	Green	Red

KPMG FPI score*

제한적인 영향

중간 정도의 영향

높은 영향

*KPMG Financial Performance Index (FPI) *KPMG 재무성과지수(FPI)는 개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측정. 전 세계 40,00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실적이 좋거나 저조한 기업, 부문, 지역, 국가 및 지역을 식별. FPI 점수 범위는 0에서 100까지이며 100은 가장 높고 가장 유리한 점수를 나타냄
 **리스크는 중국 경제가 지난 15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지, 향후 중국의 성장을 둔화가 글로벌 성장 전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지난 10년 반 동안 중국은 세계 명목 GDP 성장률의 35%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음

Source: KPMG Global “Top Risks forecast : Bottom lines for business in 2024 and beyond”

03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산업별 영향 (2/2)

2023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한해, 군사비 지출도 역대 최고치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24억 4,000만 달러로 최고치 기록
- 에너지·천연자원 분야는 지정학적 갈등·무역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구축과 중공업의 탈탄소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급망 보호 관리 및 대체, 투자 지연 등 기업들은 다양한 부정적 영향에 직면



소비재&유통

- 미국이 다양한 중국 수입 품목에 대해 301조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다른 국가의 수입량에 변화를 야기하고,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에 대비해 대체 무역 파트너를 찾거나 추가적인 공급망 확보 니즈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오고 글로벌 무역의 비효율성 초래
- 지정학적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인도 및 베트남은 노동력 및 소비재 시장 측면에서 대안으로 부상



에너지&천연자원

- 주요 에너지 생산지역에서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에너지 접근이 제한되고, 주요국들은 자국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데 집중
- IEA에 따르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는 향후 20년 동안 구리 40% 이상, 니켈 및 코발트 60~70%, 리튬 9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대국의 자원 확보 경쟁 격화



금융 서비스

- UN에 따르면, 높은 자본 비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각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2023년 국제 금융 거래와 인수합병은 각각 21%, 16% 감소
-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 중 보험 시장은 물리적 불안과 분쟁 증가에 따라 인프라와 자산 커버리지 및 화물 책임요율에 대한 보험료 인상 예정



정부&국방

- 역대 최고치로 분쟁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안보 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검증
-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동맹국간 국방 플랫폼의 상호 운용, 데이터/IP에 대한 표준 및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공급업체 모니터링 및 공급망 보호관리,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 위협 대응 필요



인프라

- World bank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높은 금리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지출은 국가 간 15조 달러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학적 갈등 상황으로 인해 정부 간 협력이 어려워져 민간 부문의 투자가 중요
- 지정학적 긴장이 악화되면서 국경간 데이터 전송 및 신기술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기업들은 관할권 기준 및 규제 변화에 대응 필요



제조업

- 대외 무역 장벽 증가는 국내 제조업 투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에너지 및 광물, 희토류 확보에는 부정적 영향
- 미국의 Samuels Group에 따르면, 공급망 관리 문제는 제조기업의 37.8%에 영향을 끼쳤으며 2023년 글로벌 기업의 71%가 공급망 위협 요인 1위로 '원자재 비용' 지적
- 철강 및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 공급 부족은 항공우주·산업기계 부문 전반의 비용 증가 야기



기술·미디어·통신

- 지역마다 상이한 규제로 통신기업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에 대비해 수백만 달러 지출
- 현재 진행 중인 6G 네트워크 구축은 향후 3~5년 동안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가 중요
- 기술·미디어·통신기업은 지정학적 분쟁 증가에 따라 통신 및 기술 자산의 안정성 확보 및 AI 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

Source: KPMG Global "Top Risks forecast : Bottom lines for business in 2024 and beyond"

04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2)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보, 경제, 디지털, 기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필요

- 경제 예측은 매출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완전, 지정학적 세계 질서는 크게 안보, 경제, 디지털, 기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업은 기업 운영, 계획 및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발견하고 평가해 리스크 노출에 따른 영향, 수익에의 영향, 비용 등과의 맵핑 필요
- 정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시스템 구축, 시나리오 및 스트레스 테스트 준비 등 현재와 미래 리스크 및 위기 대비 계획, 특히 정부 규제와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잘 이해해야 변화를 효과적으로 주도 가능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의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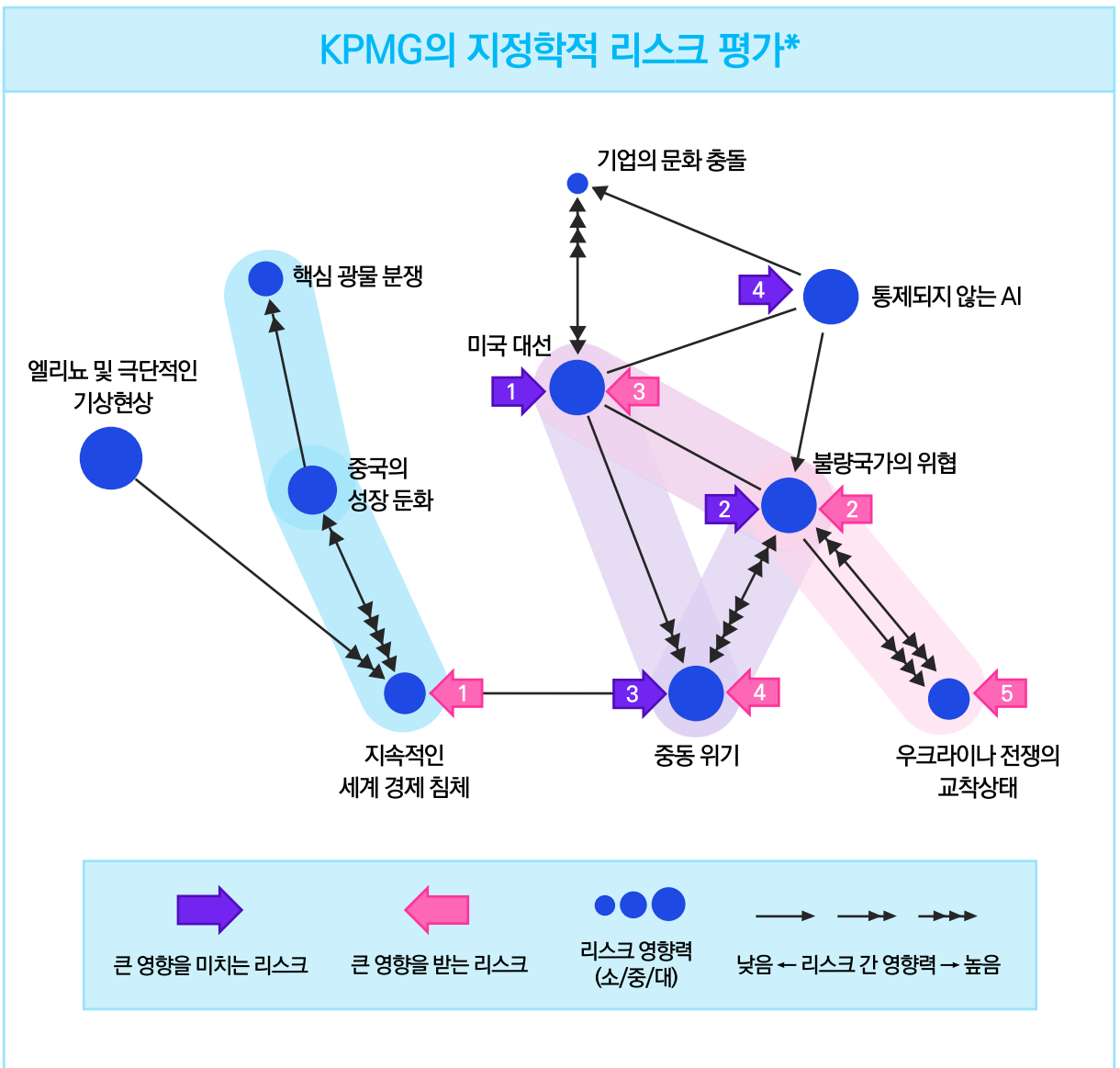
Source: KPMG Global "Top Risks forecast : Bottom lines for business in 2024 and beyond"

04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2)

리스크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지정 및 정량화

-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독 요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수 요인 간 상호작용하여 복잡성을 만들고 결과를 증폭시키므로 기업은 운영, 공급망 및 생태계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 간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비즈니스 측면에서 큰 영향력 미치는 리스크(보라색 화살표로 표시)을 해결하면 잠재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
- 예를 들어, 운영 및 공급망, 투자 채널을 다각화하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의 상황과 관련된 특정 리스크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



Source: KPMG Global “Top Risks forecast : Bottom lines for business in 2024 and beyond”
 * KPMG의 지정학적 리스크 평가(Dynamic risk assessment)는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리스크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및 리스크 간 영향력을 평가하였으며, 전염성이 크거나 영향력이 높은 리스크를 보라색 화살표로 표기함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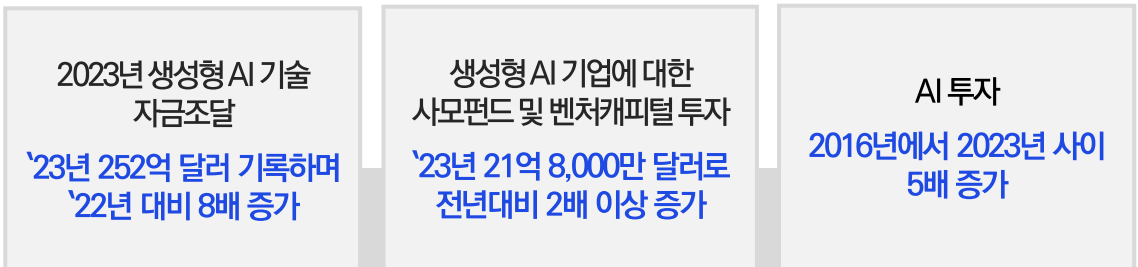
AI 기술 및 거버넌스 격차 해소

2024년 이후 기업들은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 중이며, 리더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

- AI는 인간 활동, 사회적 프레임워크,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을 혁신하는 역할로 부상
- 지난 몇 년간 AI 분야는 전반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생성형 AI 자금 조달이 크게 증가
- 2023년 KPMG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리더의 70%가 생성형 AI를 최우선 투자 과제로 선정
- AI를 비롯한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해야 함을 의미

AI 투자 증가와 AI 거버넌스 구축 시 고려사항

AI 관련 투자 증가



AI 거버넌스 구축 시 고려사항

- 기업 리더들은 AI의 정치적, 기술적, 윤리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AI 프레임워크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
- AI로 인한 개인 데이터 보안 및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신뢰와 투명성 구축
- 기술 사용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 인식 필요
- AI 도입을 위한 올바른 인프라 및 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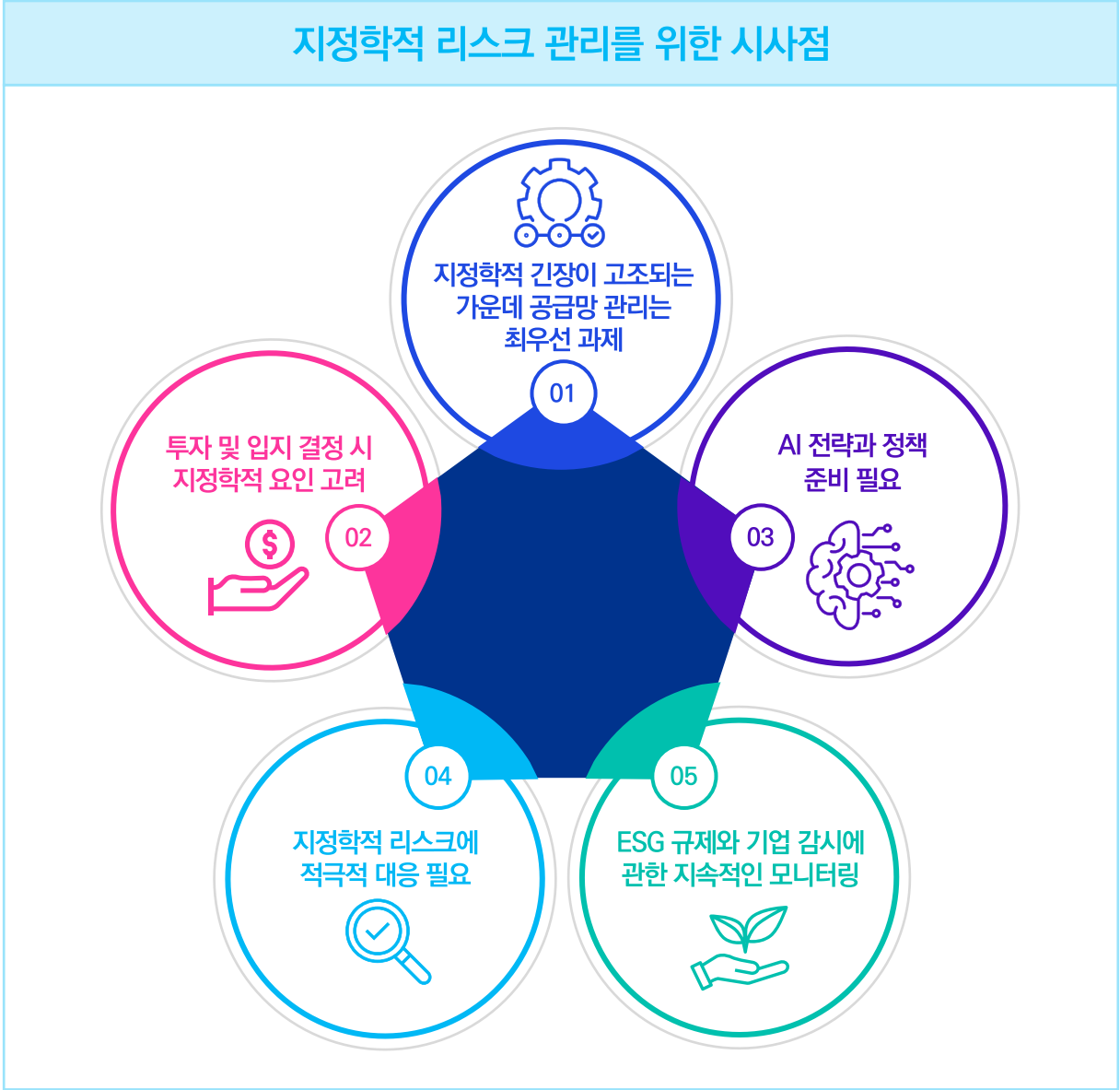
Source: KPMG Global "Top Risks forecast : Bottom lines for business in 2024 and beyond"

06

2024년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갈등 증가로 글로벌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실행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무역의 지역화, 글로벌 분쟁의 증가, 기후 리스크 및 기술 경쟁은 2024년 이후 비즈니스 변동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은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해 투자 및 입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국가별 무역 정책 및 관련 규정, ESG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Source: KPMG Global “Top Risks forecast : Bottom lines for business in 2024 and beyond”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게임·엔터테인먼트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제조·공공·인프라산업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제조·에너지산업

노상호

부대표

T 02-2112-7626

E sanghoroh@kr.kpmg.com

삼성KPMG 경제연구원

조진희

이사

T 02-2112-7454

E jinheecho@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